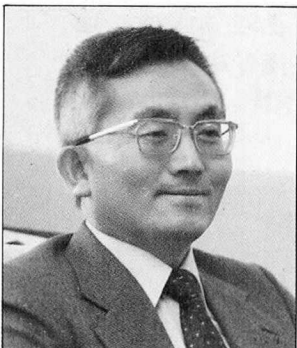


# 과학문화의 '뿌리깊은 나무'가 아쉽다

## 우리나라 과학출판의 문제점과 과제

朴星來

한국의국어대 교수 · 과학사



朴星來교수

우리나라 과학출판에 무슨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아마 출판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편이 올바른 평가가 될지 모르겠다. 그러므로 출판계가 풀어야 할 과제란 있을 턱이 없다. 그렇다면 아무런 문제점도 없고 과제도 없는 한국의 과학출판이 빈약하기는 왜 이리 빈약하다는 말인가?

그 대답은 사실 출판에서 찾아야 할 일이 아니라 출판 밖의 세계에서 찾아야 할 일이다. 지금과 같은 상황 아래서는 아무리 좋은 과학책이 나온다 해도 그것이 널리 읽히고 또 그와 같은 다른 과학책의 출판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기대할 수가 없다.

좀 과장한다면 우리에게서 아예 과학출판이 없다. 해마다 나오는 「출판 연감」을 뒤져 보면 쉽사리 우리 과학출판의 불모성을 간파할 수가 있다. 다른 분야의 책들에 비해 과학출판물은 거의 없다는 편이 옳을 지경이다. 몇 출판사가 과학책을 내면서 적자를 보고 있다는 것은 알 만한 사람은 다 아는 일이고, 80년대에 들어 시작된 우리나라의 과학잡지들이 역시 붉은 줄 굵기에 바쁘다는 것도 짐작이 가는 일이다.

### 과학출판 불모의 원인들

그 원인은 쉽게 밝혀낼 수가 있다. 한국에서는 아무도 과학책을 읽으려 하지 않기 때문이다. 독자가 찾지 않으니 책을 많이 만들 수 없고, 또 형편이 그렇고 보니 뛰어난 과학책 필자가 나올 수 없다. 과학출판의 문제는 우리 한국인들이 과학에 대한 관심을 갖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가리키는, 출판의 차원을 뛰어넘는 보다 근본적인 문제이다.

한국의 과학출판이 갖고 있는 문제는 이 땅에는 과학출판이랄만한 것이 없다는 데에서 찾아야 한다. 그렇다면 우리의 과제는 스스로 분명해지는 것이 아닐까? 먼저 이 나라

에 과학출판을 시작해야겠다는 것이다.

불모지에 과학출판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먼저 국민전체에 과학책을 읽으려는 욕구를 심어주는 일이 급하다. 사실 과학책을 읽으려는 욕구가 어린이들에게는 상당히 높다. 왜냐하면 한창 자라나고 있는 아이들은 신기한 것을 알아보려는 욕구가 거의 본능적이어서 구태여 이를 조장하지 않아도 충분한 정도로 자연과학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이들 어린이들에게 마음놓고 앉아 그들의 욕심대로 책을 읽도록 놓아두지 않는 데 있다. 우리가 다 잘 아는 바와 마찬가지로 이 나라는 대학입시에 일생을 거는 도박판 공화국을 만들어 놓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과학출판을 제 자리에 올려놓기 위한 우리의 과제는 대학입시로만 매달리는 우리 교육을 뜯어고치는 일이 될 것이다. 그러나 평준화나 과외문제를 둘러싼 우리사회의 고민을 보더라도 이 개혁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은 너무나 분명하다. 국민학교에서 고등학교까지의 교육이 대학진학을 위한 피나는 준비과정으로밖에 될 수 없는 비극적 실상을 쉽게 바꿀 방도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다.

### 과학에의 관심 유도가 급선무

그렇다면 차선의 방법은 무엇이 있는가? 잘못된 걸 알면서도 우리의 교육을 고칠 수 없다면, 교육개혁은 뒤로 미루고 당장 필요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잘못된 교육이나 우리의 목적에 맞도록 활용하면 좋을 것이다. 입시 중심으로, 성적 만능으로 나가고 있는 교육의 내용에 바람직한 과학내용을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담아 학생들의 과학에 대한 관심을 길러가자는 것이다.

국민학교에서 고등학교까지의 교육내용에 과학을 담는 일은 다음의 몇가지 방향에서 진행되어야 하리라고 생각한다.

첫째, 모든 교과서가 과학교육과 유기적이고 입체적인 관련성 속에 편찬되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지금의 국어교과서에는 과학기술을 내용으로 한 글이 거의 없이 온통 문학적 작품으로만 채워져 있다. 이런 내용은 현대 한국인의 국어생활에 알맞은 내용이 아니다. 문학에 대해 많은 사람이 취미를 갖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대부분의 현대인은 고도로 발달한 과학기술의 문명 속에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읽고 쓰는 글이 과학기

### 중요한 것은 국민 전체에게

### 과학책을 읽으려는 욕구를

### 심어주는 일이다. 따라서, 우리나라

### 과학출판은 그런 욕구를 자극하는

### 과학문화 건설작업의 일환으로

### 진행돼야 한다. 대중적 바탕이 없는

### 문화란 언젠가 말라 죽을 수밖에

### 없다는 점에서 출판을 통한

### 과학대중화 작업은 과학연구에

### 못지 않은 중요성을 지닌다.

술을 내용으로 담고 있는 경우가 더욱 많아지고 있다. 국어교재에 실는 글은 상당수가 과학기술을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 바뀌는 것이 바람직하다.

마찬가지로 학생들이 많은 시간을 들이고 있는 영어교과서도 과학기술을 내용으로 하는 부분을 대폭 늘려야 옳을 것이라 생각한다. 한국에서 쓰고 있는 영어교재가 한국문화에 대한 내용은 없이 영국과 미국의 생활이나 역사, 문화만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은 그야말로 년센스라 할 것이다. 또한 국어교재나 마찬가지로 영어교재도 과학기술을 내용으로 한 글이 많아져야 학생들의 미래사회에 대한 적응능력을 기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물론 국어와 영어교과서의 예에 따라 다른 교과과정에도 적절한 수정이 있어야 하리라 생각한다.

### 교육제도 개편과 과학출판의 활성화

둘째로는, 과학교과서의 대폭적 수정이 있어야만 과학출판이 활성화할 수 있다. 지금 우리나라의 각급 과학교재는 너무 어렵고 또 잡다하게 많은 지식의 나열에만 치중하고 있다. 과학을 논리적 사고를 기르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과학과목의 공부가 모두 미래의 과학기술자 양성에 목표를 둔 것처럼 구성되어 있다. 각급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은 그 쓰레기같은 과학과목의 나열된 지식을 시험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암기했다가 시험, 특히 대학입시만 끝나면 머리 속에서 쓸어나기에 바쁘다. 이런 과정 속에 학생들이 느끼는 과학에 대한 인상은 정말 지겹기 짝이

없는 과목이 되어버리는 것이다. 이렇게 자라난 청소년들이 스스로 과학책을 찾는다면 그것은 기적이 아닐 수 없다.

다음으로는, 대학 입시를 완전 자율화하여 대학마다 주관식 시험을 출제하게 된다면 고등학교까지의 과학교육은 조금 숨통이 트이게 될 것으로 보인다. 대학마다 입시를 알아서 자율적으로 처리한다면, 대학에 따라서는 무시험 입학제도를 실시하는 경우도 생길 것이고, 시험과목이나 시험문제의 성향도 서로 달라져 교과서 중심의 병폐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자연히 고등학교까지의 교과서 중심 암기전쟁이 끝날 것으로 보인다. 당연히 국정이나 검정이나 하는 따위 천편일률적인 교과서도 필요없게 될 것이며, 담당 교사마다 자기에게 맞는 교재를 자기 과목 기본교과서로 쓰게 돼야 한다. 과학교과서의 완전자율화 속에서만 과학독서인구가 늘어갈 수 있다.

### 과학대중화 위한 본격투자 필요해

이와 함께 풀어야 할 또 하나의 근본적인 과제는 정부차원의 전폭적인 과학진흥운동이다. 지금까지 정부는 과학기술이 민족의 장래를 좌우한다면서 연구기관을 만들고 연구를 지원해 왔고, 기업들이 그 뒤를 따라 연구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는 물론 필요한 일이지만 지금처럼 국민전체의 과학기술에 대한 관심을 최하한선에 묶어둔 채 연구에만 집중투자를 해서 될 일이 아니다. 왜냐하면 보다 유능한 더 많은 한국의 청소년을 과학기술계에 끌어들이지 못한다면 과학기술의 수준향상은 점점 더 어려워질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한국 과학기술의 장기적 발전을 위해서 당장 국민전체를 과학기술에 관심을 갖도록 유도해 가는 작업이 시작되어야 마땅하다. 과학기술 연구에만 투자할 것이 아니라 과학의 대중화를 위해 본격적인 투자가 시작돼야 한다. 과학출판은 지금까지 거의 완전히 무시되고 있는 한국의 과학문화 건설작업의 한 부분으로 이해되어야 옳다. 과학책이 퍼지고, 과학기사가 읽히고, 과학방송이 얘기거리가 되는 그런 사회를 만들지 못하는 한 우리의 과학수준은 선진화할 도리가 없다. 대중적 바탕없는 문화란 언젠가 말라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한국과학을 뿌리 깊은 나무로 기르려는 노력이 하루 속히 시작되어야 하는 것이다.